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의 경제강국건설투쟁에 대한 대외선전을 잘하도록 이끄신 불멸의 업적

한 명 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그 어떤 적도 건드릴수 없게 하며 전체 인민이 아무런 걱정없이 행복하게 잘살도록 하자는것이 바로 나의 구상이며 확고한 결심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9권 446페이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시면서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이 나날에 강계정신이 창조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버려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시기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경제봉쇄를 물리치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빛나는 성과를 적극 소개선전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우월성을 세계인민들속에 힘있게 과시하기 위한 대외선전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의 경제강국건설투쟁에 대한 대외선전을 잘하도록 이끄신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엄혹한 경제난관을 타개하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성과를 적극 선전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주체82(1993)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실현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경제전략은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경제전략이였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많은 농장들이 정보당 소출을 전해보다 훨씬 높였으며 경공업부문의 1 000여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연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대외에 널리 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이에 따라 대외선전출판물들인 《평양시보》와 잡지 《오늘의 조선》, 화보 《조선》 등에 당의 농업제일주의방침관철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에 대하여 소개하는 《조선의 농업발전》, 《금당벌의 처녀》를 비롯한 여러건의 기사들과 사진자료들을 널리 편집하였다. 그리고 평양종합방직공장(당시), 평양곡산공장 등 인민소비품생산단위들에서 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데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소개하는 글을 출판물의 특성에 맞게 상세히 편집하였다.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서 이룩되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선전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과 불패성을 세상사람들에게 과시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자강도에서 창조된 본보기가 온 나라에 일반화되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승리적으로 결속되어나가는 데 대한 대외선전도 잘하도록 하시었다.

간고한 우리 혁명의 여러 년대들에 만경대혁명일가분들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자강도의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정력적인 지도밑에 견인불발의 의지로 산악처럼 떨쳐일어나 사회주의수호정신인 강계정신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락관주의정신을 지니고 도처에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으며 공장마다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보가 자강땅에서 창조된 이 모범을 널리 선전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보도전을 진공적으로 벌리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9(2000)년 6월 19일을 비롯한 여러 교시들에서 보도전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선군장정의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기자들이 쓴 원고를 빠짐없이 보아주시었다.

그리하여 령도기사 《장군님 잊지 못하시는 강계의 눈보라》가 주체89(2000)년 7월 13일 《로동신문》 1면의 옹근 한면에 크게 편집되었다. 그 뒤를 이어 사설 《강계정신을 따라배워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자》, 령도기사 《자강땅에 새겨진 위대한 령도의 자욱》을 비롯하여 강계정신과 자강도사람들의 일본새에 대한 무게있는 글들이 련이어 편집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편 주체87(1998)년 2월 4일교시를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대외 정기간행물들에서도 자강도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화보 《조선》은 주체87(1998)년에 《특색있는 중소형발전소들》이라는 제목으로 자강도로동계급이 여러가지 형태의 중소형발전소들을 건설한 소식을 크게 소개하였다.

《평양시보》와 잡지 《오늘의 조선》, 《금수강산》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관철에 펼쳐나선 자강도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을 크게 선전하였으며 장강군의 봉천강기슭에 불야경을 이룬 로동자마을 등 선군시대 사회주의선경으로 꽃피난 문화주택들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정기간행물의 특성에 맞게 널리 편집하였다.

자강도인민들의 혁명정신과 일본새에 대한 힘있는 선전은 온 나라 인민들을 끝없이 격동시켜 그들을 경제강국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켰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우리 인민들의 필승의 기상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앞으로!》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계정신과 성강의 봉화따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도 적극 소개선전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7(1998)년 1월 2일 이해를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의 해로 규정하시면서 구호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앞으로!》를 제시하시었다.

이것은 당시의 조성된 준엄한 정세와 환경의 요구를 반영한 가장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전투적구호였다.

이에 접한 당보의 기자, 편집원들은 보도선전공세를 즐기치게 벌리었다.

그리하여 주체87(1998)년 3월 16일부에 사설 《성강의 봉화따라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키자》를 편집한것을 비롯하여 성강의 봉화가 힘있게 타번지게 하기 위한 보도선전이

힘있게 벌어져 온 나라에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었다.

화보 《조선》에서는 평양기포부채공장,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하여 널리 소개하였다.

《평양시보》와 잡지 《오늘의 조선》, 《금수강산》도 석탄, 전력, 금속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데 대하여, 수도 평양에 1만세대살림집이 일떠서고 농촌문화주택을 비롯한 살림집들이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건설되고있는데 대하여 크게 소개하였다.

한편 대외론설 《자력갱생으로 난국을 뚫고 나간다》, 《랑만이 넘치는 조선사회》, 《살림집문제를 통해 본 조선》 등을 집필편집하여 여러 나라에 발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를 대외에 적극 선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인민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이 온 세상에 과시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경제강국건설투쟁에 대한 대외선전을 잘하도록 이끄신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성과를 적극 소개선전하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강성국가건설의 밑천으로 되고있는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대외에 적극 선전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었다.

이 시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의 경제를 저들의 예측경제로 전락시키고 세계적범위에서 경제적침략과 약탈을 그 어느때보다도 로골화하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그 우월성을 선전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침략책동의 반동성과 교활성을 똑바로 인식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7(1998)년 9월 4일 《로동신문》과 《근로자》에 자립적민족경제에 대한 공동론설이 발표된것을 계기로 그것을 대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도록 하시었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맞게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소개하는 글과 사진편집사업이 적극화되었다.

《평양시보》는 기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끝까지 견지할것을 주장》, 《자립의 길은 번영의 길》 등을 편집하였으며 잡지 《오늘의 조선》에서는 론설전문을 게재하였다.

화보 《조선》에서는 우리의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가 낳은 1만 t 프레스, 특대형산소분리기, 트랙포르생산기지, 대형집배 《대각봉》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열간압연직장을 비롯하여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특색있게 편집하여 대외에 널리 선전하였다.

《평양시보》와 잡지 《오늘의 조선》, 《금수강산》도 《자립적민족경제와 그 우월성》,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위력한 자립경제》, 《세계적인 수리화》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보여주는 글들을 적극 편집하였다. 그리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등 주요공장, 기업소들의 튼튼한 생산잠재력을 보여주는 글들을 사진과 함께 적극 소개하였다.

잡지 《조선의 무역》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주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잠재력과 생산물들을 특색있게 편집하였다. 이와 함께 대외론설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견지하는 조선》 등을 집필번역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발송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나가는데서 이룩된 성과도 대외에 널리 선전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대외선전출판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소식과 낙천적인 생활을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화보 《조선》은 태천2호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소식 등 우리 나라에서 전력생산의 돌파구가 열리고있는데 대하여 대외에 적극 선전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이 벌어지는 한편 대흥단에서 감자농사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양어장, 닭공장이 건설되어 먹는 문제해결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평양시보》와 잡지 《오늘의 조선》, 《금수강산》도 《조선의 수력자원》,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추진》, 《눈부신 전변을 일으킨 강원도》, 《약동하는 대흥단》, 《산간지대의 양어장》, 《개천-태성호물길공사 진척》, 《닭공장들이 건설된다》 등의 제목밑에 전력공업과 농업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에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였다. 이밖에 대외정기간행물에서는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도 체계적으로 소개선전하면서 청년영웅도로와 광명성제염소 등 기념비적건설물들이 일떠선데 대하여 출판물들의 특성에 맞게 편집하여 내보냈다.

그리하여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도약대를 마련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발전시켜나가기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를 대외에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대외에 적극 선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속에서도 경제강국으로 솟구쳐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이 세계에 널리 과시되고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